

제426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임시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6월26일(목)

장 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10977)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나. 해양수산부 소관
다. 산림청 소관
2. 2025년도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9)
3. 2025년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0)

상정된 안건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10977) 1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나. 해양수산부 소관
다. 산림청 소관
2. 2025년도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9) 1
3. 2025년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0) 2

(10시04분 개의)

○소위원장 **윤준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소위원회는 오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서 그 결과를 오늘 전체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인 추경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10977)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나. 해양수산부 소관
다. 산림청 소관
2. 2025년도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9)

3. 2025년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0)

○소위원장 윤준병 안건 심사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순으로 하겠습니다.

심사 방식은 배부해 드린 소위원회 심사자료의 사업별로 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거쳐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하여 소속, 직위, 성함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부 측에서 강형석 차관이 출석하셨습니다.

차관님,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오늘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은 잘 듣고 저희 공무원들은 최선을 다해서 그 말씀을 집행하고 이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그러면 추경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용훈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수석전문위원 최용훈입니다.

소위 심사자료 1번입니다.

목차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25년도 요구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아침에 철회된 것 있고 그래서 세부사업 건수는 증액 요구가 25건, 실제 요구사항 건수는 31건이고 부대의견이 1건 추가돼서 9건입니다.

기타사항 1건 있는데 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정부에서 수용 24건이고요, 일부수용이 3건, 수용곤란이 4건 되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농촌경제활성화 관련해서 농촌관광 할인쿠폰 제공을 위해서 30억 또는 60억 원인데 지원 대상 차이입니다.

1-2번은 국제농업박람회(전남) 예산 15억 증액 의견입니다.

2번 사업은 철회하셨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농사용 전기요금 차액 지원과 관련해서 364억 7000만 원 또는 790억 원이 있는데 정부에서는 작은 금액을 수용했습니다.

4번 영농도우미 관련 인건비 인상과 가구수 확대를 위해서 24억 7700만 원 증액 의견 있으셨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5-1번 사료구매자금 상환유예에 29억 1800만 원 증액 의견 있으셨고요.

5-2번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20억 7200만 원 또는 12억 4300만 원인데 용자 규모에 차이가 있습니다.

5-3번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이차보전 관련 100억 증액 요청 있는데 정부는 이 중에 52억 수용입니다. 5200만 원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6번 농산업 수출업체의 수출 준비비용 지원 예산 15억 4000 또는 21억 원인데 지원 회사 개수가 22개, 30개 이 차이입니다.

7번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수급안정 지원을 위해서 117억 30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8번 저출산 대응 및 친환경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42억 4000만 원 또는 80억 8000만 원인데 지원 대상 차이에 있습니다. 1만 명 또는 2만 명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9번 제주에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 기본계획 수립 경비 3억 원, 10번 제주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 설계비 7억 원, K-푸드 국제 올림픽 사업 관련 10억 원 신규예산 있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12번은 광주광역시 공공배달앱 할인 지원 11억 원인데 정부에서 수용곤란에서 수용한다고 의견을 바꿨습니다.

13번, 농식품 수출업체의 경영 운영자금 지원 100억 또는 200억인데 지원 대상 5개 또는 10개소 차이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 대응 지원 관련해서 중앙정부 예산 지원을 위해서 5억 증액인데 정부에서 5억 전액 수용으로 의견을 바꿨습니다. 전액 수용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15번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대책시설 설치 413억 증액, 16-1번 재해 대비 저수지 방류시설 지원 35억 원, 16-2번 경기 화성시 용소양수장 증축 설계비 5000만 원 수용입니다.

11페이지 17번의 충남 부여군 충화지구 3억 증액, 충남 부여군 현암지구 3억 증액인데 정부에서 일부수용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도축장 전기요금 특별지원 관련해서 271억부터 83억까지 있었는데 정부는 168억 수용입니다.

13페이지인데 축산환경관리원의 충남 공주 이전을 위한 기본·실시설계비 14억 5700인데 정부 수용 곤란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초등학생 과일간식 지원 예산 관련해서 78억 또는 39억 신규입니다.

21번, 농업용 면세유 가격 보전 관련해서 112억 8300 또는 42억 2000이 있습니다. 지원 규모 차이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농식품바우처 사업 지원 대상 기준을 50% 이하로 하기 위한 4459억 원 증액이 있는데 정부 수용 곤란 의견입니다.

22-2번에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청년 가구 지원 233억 원 또는 190억 원, 2개 중에 190억 수용 의견입니다.

23번에 충남 부여군 신재생에너지 설치 14억 증액인데 정부 반대 의견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24번, 비축 지원, 콩 비축 관련 2337억 6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25번, 채소가격 안정지원 사업 344억 7400인데 정부 수용 곤란 의견입니다.

26번, 증평균의 인삼 공동 선별 시설 설치 관련 컨설팅비 1억 2600만 증액 의견입니다.

18페이지의 부대의견이 8개입니다.

이 중에서 4번, 축사시설 현대화,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의 소급적용은 정부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8번, 8-1이 추가가 됐습니다.

여수세계박람회 관련 예산 적극 지원인데 수용 의견입니다.

20페이지의 기타사항은 이번에 국회에 제출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1번부터 차례대로 저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번, 농촌관광 할인쿠폰은 수요 등을 고려하여 60억을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잠깐만요. 회의 진행을 위해서 수용하는 것 빼고 수용이 어렵다고 하는 내용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알겠습니다.

4페이지, 5-3번입니다.

저희들이 일부 수용을 한 이유는 이 사업은, 5-3번은 축산농가 시설 현대화입니다. 이것은 이차보전 사업이라 100억을 반영하게 되면 너무 커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200을 반영했고요.

그리고 8페이지입니다.

12번의 광주광역시 공공배달앱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수용을 했습니다마는 광주광역시에 전부 드리는 건 아니고 사업을, 예산을 반영하게 되면, 혹시 광주광역시가 부족하면 그 예산을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광주광역시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예산을 드렸고요. 그래도 부족하다면 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14번도 저희들이 수용을 했고. 어제 서삼석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지방재정 여력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농촌용수개발 17-1, 17-2번입니다.

저희들이 수용을 했습니다마는 이 3억 원은 사업이, 기본조사는 2년간 걸쳐 됩니다. 1년 차에 1억, 2년 차에 2억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억만 담아 주시면 2년 차에는 다시 예산을 정부 예산안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입니다.

축산관리원 공주 이전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이전을 계획하고 있고 내년부터 진행이 되는데 올해 예산안을 넣더라도 사실은 예산은 내년부터 집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준비작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걸 저희들이 수용 곤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22-1번입니다.

서삼석 위원께서 바우처 사업을 중위소득 50% 이하로 하셨는데 실제로 저희들의 방향이긴 합니까라는 사실 추경에 들어가면 저희들이 예산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수용 곤란 말씀을 드렸고요.

아랫번에 있는 22-2번, 청년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수용을 하고, 다만 준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4개월을 반영한 190억을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23번의 23-1번입니다.

부여군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하는 지금 저희들이 예산이 남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부여군도 지금 사업을 거의 포기한 상태지만 혹시 하더라도 저희들이 남은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25번입니다.

채소가격 안정지원 사업은 저희들이 예비비성입니다. 이게 농산물 가격이 낮아지면 주는 거기 때문에 굳이 반영하지 않더라도 가능하고요. 최근에 사실 농산물 가격이 낮아져서 집행이 안 됐었습니다. 혹시 필요하게 되면 저희들이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용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부대의견 4번입니다.

어제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 주셨지만 사실 소급적용은 저희들이 불가능한 사항이고요. 왜냐하면 7년간 유예했고 저희들이 그런 사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 신뢰성이라든지……

하지만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압니다. 왜냐하면 케이지 바꾸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양계협회랑 협의를 해서 어려운 점을 한번 얘기를 해서 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급적용을 재검토한다’기보다는 ‘어려운 점을 양계협회랑 얘기해서 함께 대책을 강구해 나간다’ 쪽으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양계협회랑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교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윤준병 김선교 위원님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교 위원 차관님, 처음 소위원회 들어오셨는데 우리나라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670, 656……

○김선교 위원 2회 추가경정예산이 얼마예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세출은 20조입니다.

○김선교 위원 이번에 올린 게 얼마예요? 30조 5000억이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세입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김선교 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올라온 예산이 얼마예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1860억입니다.

○**김선교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되지도 않을 것을 잔뜩 올려 가지고 이게 통과가 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하나라도 살려 보고자 말씀을 드렸고요.

○**김선교 위원** 선택과 집중을 해 가지고 정말 농업인들, 축산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현장에 다녀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게 단돈 몇백억이라도 세울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야지 잔뜩 해서 수용 곤란하다 해 가지고…… 여태 세워진 것 있습니까, 이렇게 해 갖고?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지난 1차 때는……

○**김선교 위원** 예를 들어서 무기질비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1차 때 반영됐습니다.

○**김선교 위원** 예를 들어서 영농후계자, 청년 후계영농인 또 현안사항이 짝 있잖아요, 전기요금, 사료 가격.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것만큼은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예산을 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도 미리미리 해 가지고, 그런 것을 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해서 여기서, 소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또 예결위에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해야지 이게 통과가 되는 사례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걸 가지고 우선순위 리스트를 만들어서 재정당국과 협의를 하고 위원님들께도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김선교 위원** 그래야 농축산인들의 애환을 달래 주지 이렇게 해서는 달래 줄 수가 없다. 여기에 보면 저수지 이런 것 각 지역별로 해 가지고 백날 올려 봐야 소용이 없어요. 시간 낭비고 소모적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리미리 딱 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실링을 쥐 가지고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저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서천호 위원님.

○**서천호 위원** 차관님, 19페이지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의 소급적용 재검토 부분은 수용 곤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계란값이 문제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그렇습니다.

○**서천호 위원** 그런데 어제 회의 때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축산법 부칙 개정을 발표했잖아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서천호 위원**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있냐면 현장에서는 산란계를 키우는 게 아니고 병아리를 지금 집어넣었어요.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생각합니까? 왜냐하면 마리당 사육시설을 지금 확대를 시켰잖아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서천호 위원** 그러다 보니까 병아리를 많이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고 아마 계속 지속적으로 계란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그래서 소급 적용을 재검토한다라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하지 못할 것 같으면 축산법 부칙 개정을 포함해서 논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부칙 조항을 포함을 시키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엄격하고 충분한 논의를 해야 될 사안이에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천호 위원** 그래서 그걸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시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위원님, 정말 그 말씀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7년의 시간을 들였고 앞으로 2년간 또 유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그런……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축산하시는 분들께서 재검토하나 보다 이런 또 그게 생길 수 있어서 저희들……

○**서천호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 소급 적용을 재검토하라고 단정적으로 하기에 곤란한, 정책적으로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제한이 있다고 그러면 이 부분을 축산법 부칙 개정을 포함해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시행을 한다 그런 식으로 조금 탄력적으로 기술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현장에서는 그런 의견이 있지만 그 부칙 개정까지 포함 시키면……

○**서천호 위원** 그래서 이걸 수용 곤란하다고 이렇게 딱 정리를 하면 안 된다는 얘지요, 실제로 현장에 문제가 많은데.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대안 문구를 말씀드렸고요. 저희들이 개정했으니까 끝났다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 2년간, 3년간 계속 대화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적극 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천호 위원** 실제로 지금 현장에 문제가 많거든요. 그렇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그렇습니다.

○**서천호 위원** 현장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 문제를 개선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인데, 그냥 시행해 보고 또 그 결과를 보고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실제로 현장에 문제가 많고 계란값이 폭등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시행령이 됐든 법이 됐든 정책이 됐든 개선을 해야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맞는 말씀이고요.

○**서천호 위원** 그런 의지를 적어도 부대의견에는 포함을 시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위원님,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란 문제 때문에 건폐율이라든지……

○**서천호 위원** 차관님, 말씀을 자꾸…… 제가 조금 완곡하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좀 직설적으로 얘기를 할까요? 이것 수용 곤란이라고 작성을 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그렇습니다.

○**서천호 위원** 현장에 지금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문제가 있다는 거 알잖아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그렇습니다.

○**서천호 위원** 지금 그 문제가 왜 생겼냐? 축산법 부칙을 발효를 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개정을 검토를 해야지. 그렇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다고 지금 인정을 하고 또 그걸 어떻게 하겠다 또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가 우려가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수용 곤란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는, 단정적으로 하지 말고 이 부분을 여지를 두고 이렇게 하자는 얘기인데 자꾸 이렇게 말을 돌려서 앞으로 어떻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위원님,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7년간 유예기간을 드렸고 앞으로 2년간의 기회가 있고요. 또 저희들이 건폐율이라든지 케이지 단수 늘려서…… 2년간 기회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제가 고려해서, 지금도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쪽 통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서천호 위원** 차관님, 말씀을 자꾸…… 두 사람이 이렇게 시간 잡아먹으면 안 되고. 현장에서, 제가 반복되는 얘기지만 문제가 많다고 지금 업계에서 자꾸 거론을 하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듣고 있습니다.

○**서천호 위원** 그리고 또 실제로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도 계란값이 지금 폭등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원인 제공을 어찌 보면 농림식품부에서 제공한 거예요. 왜, 어떤 필요성이 있었다는 부분은 알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그 정도로 정리를 마무리를 하면 될 텐데 왜 자꾸 부처 의견을 이렇게 수용 곤란으로 밀고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수용 곤란은 표현이 약간 너무 강한 표현인 것 같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위원님 우려 고려해서 충분히 제가 그 현장이랑 대화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고쳐 나가겠습니다.

○**서천호 위원**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없다고 그래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이미 한 15%는 다 고쳤고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도 압니다, 위원님. 그런데 그게 전체의 문제는 아닙니다.

○**서천호 위원** 질의하면서 언성 안 높이려는데 자꾸……

○**소위원장 윤준병** 서천호 위원님.

○**서천호 위원** 차관님, 그거는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잘 판단하시리라 생각하고.

수용 곤란이라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정부의 입장을 정리를 하면 산란업계에서 아마 상당히 불쾌할 겁니다. 그리고 소비자 문제가 아니고요,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소위원장 윤준병** 서천호 위원님 제가 중재안 내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감안해서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에 대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절차를 진행한다 이 정도로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 한번 목소리도 듣고 이런 내용으로 부대의견을 다시지요. 예를 들면 재검토한다고 그러면 또 다른 시그널을 줄 우려가 있다 이런 내용인데 아예 그 자체에, 제안이 있었는데 안 넣겠다 이렇게 하면 또 그것도 예의가 아닌 만큼 이 내용과 관련해서 우려를 고려하여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에 대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절차를 진행한다 이 정도로 해서 그 내용을……

서 위원님, 그렇게 하시면 되겠지요?

○서천호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소위원장 윤준병 또 다른 위원님……

○서천호 위원 제가 추가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8페이지 2-2번 보시면 이 부분은 정부 입장이 수용으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정부양곡 도정공장이 전국에 한 120여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이 사실은 민간 RPC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그렇습니다. 농협……

○서천호 위원 일부가 지역농협에서 투자를 하거나 지역농협에서 직접 운영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그렇습니다.

○서천호 위원 제가 어제 마이크가 꺼져서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렸는데 정부 양곡의 타…… 일반양곡을 도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제도에 대한 소위 여러 가지 불합리성을 지금 어디에서 문제 제기를 하나 하면 지역 단위 농협 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그 문제 알고 있습니다.

○서천호 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지금 정부에서 정부양곡 도정공장에서 일반미를 도정 못 하게 하는 것은 이 도정하는 과정에 혹시 썩힐까 봐서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역의 단위 농협 같은 경우에는 수입산을 취급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막아 놔다는 얘가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실무적으로 충분히 좀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용이라고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감안이 돼서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다른 위원님……

송옥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송옥주 위원 저는 축사시설 현대화 예산 관련해서 차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2차 추경에서 축사시설 현대화 예산이 224억이 추가로 반영이 됐어요. 맞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그렇습니다.

○송옥주 위원 그래서 올해 안에 1183억 5900만 원을 용자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현대화 예산에는 아까 서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올해 9월부터 실시하는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하는 부분들은 포함돼 있지 않은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아닙니다.

○송옥주 위원 포함돼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그것까지 수요를 고려했습니다.

○송옥주 위원 그래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그렇습니다.

○송옥주 위원 포함돼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왜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아닙니다. 220억 중에 140억이 산란기 케이지 바꾸기 위한 돈입니다.

○송옥주 위원 그래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나머지는 산불 피해라든지 그 용도고요. 포함돼 있습

니다.

○송옥주 위원 그러면 이 용자 지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하는 부분도 정부 지원이 가능하더라는 의견인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그렇습니다.

○송옥주 위원 그러면 별도의 부대의견이나 의견 제시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그렇습니다.

○송옥주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문대림 위원님.

○문대림 위원 축사 또는 축산 시설 현대화가 필요하잖아요. 생산성도 향상시켜야 되고 환경도 개선해야 되는데 그런데 스마트 축사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스마트 축사와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설계를 할 수가 있는 곳이 있는지 또는 ICT 융복합 장비들을 공급할 수 있는 기술력이 있는지 또는 그것을 그렇게 해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 능력이 우리나라에 있는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점검이 이루어진 이후에 시설 현대화라는 이름으로 국가 예산이 지원되는 것인지 이게 매우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문대림 위원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스마트 축산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왔는데 축사 또는 축산 시설 현대화를 위해서 매우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제가 쪽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이 스마트 축사와 관련해서 대한민국에 설계를 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또 어쨌든 ICT 관련 융합 장비들, 설비들 공급할 수 있는 곳이 없고. 따라서 건축기술자들도 없고. 그러면 현대화라는 이름으로 지원이 되는 정부 예산들이 몇백억, 몇천억, 수천억 될 테고 지금까지 지원된 예산, 기능 보강이라든가 시설 현대화라는 이름으로 엄청나게 많은 국가 비용이 지원됐을 텐데 이런 것들이 정말 유용하게 쓰이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그 말씀은 100%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ICT라든지 완전히 최첨단의 시설이 돼야 되는데 저희들 시설 현대화 사업은 그것도 포함하지만 좀 낮은 수준의, 메탄가스라든지 방풍팬 이런 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문대림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계속 낮은 수준의, 어쨌든 메탄가스라든지 분뇨 처리에 조금 더 나은 수준의 이것을 위해서 계속 투자들을 했었는데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관련 부처 입장에서 그 이상의 신경을 써야 될 때다 이렇게 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지금 현 정부 들어서 그쪽……

○문대림 위원 그러니까 보통 미국, 네덜란드, 독일, 중국 여기에 찾아다니면서 설비도 구하고 건축기술자들 와서 지어 달라고 하고 또 나중에 고장 나면 AS 받으러 쫓아다니고 이게 축산 농가들의 현실이에요. 뭔가 새롭게 해 보려고 하시는 분들의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쪽 한번 살펴 가지고 이것에 대한 종합 대책이 좀 필요하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문대림 위원 충남에선가 구상 좀 한다고 하던데요. 잘 좀 살펴봐 주시고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알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리고 7페이지 관련해서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 지원단지조성과 관련해서 실은 차관님 아실지 모르겠지만 지난해 예결위 과정에서 이게 합의가 됐던 사안이거든요. 올해 본예산에 담기로 합의됐었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어기셨어요. 본예산에 안 담으셨어요. 그래서 다시 거론이 되는 건데 이렇게 다시 올라가서 또 예결위에서 차단되고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밑의 내용도 그렇습니다. 그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 관련해서도, 존경하는 문금주 위원께서 제주도 것 10억 올라가니까 막 뭐라고 하는데 제주도가 사실 1차산업 비중이 1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평균의 여섯 배가 되거든요. 그리고 알다시피 유네스코 자연과학 분야 3관왕을 제주도가 차지한 상태고요. 어쨌든 약 9000여 종이 넘는 천연생물자원들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 제주도다. 그래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매우 적합한 곳이 제주도이기 때문에, 물론 전체적으로 지금 벤처캠퍼스가 5개소가 있더라고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총 9개소……

○**문대림 위원** 총 9개소입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5개소 있습니다. 맞습니다.

○**문대림 위원** 어쨌든 전부 내륙에만 편중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서형 특화사업 충분히 명분이 있다 동의하시지요, 차관님?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지역분권이나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검토가 아니라 관철 반드시 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문금주 위원님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금주 위원** 차관님, 이번에 혹시 기재부하고 얘기가 돼서 어느 정도 얼마 정도 증액을 할 수 있는, 그게 묶이 있나요? 얼마 정도 예산을 하시나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저희들은 사실 그걸 전혀 모릅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있지만 아마 그건 기재부에서 국회와 상의드리는 과정에서 결정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전혀 모릅니다.

○**문금주 위원** 지난번에 꼭 당정 회의는 아니지만 정책실하고 정책위 간에 의견 교환했을 때는 이번에 농림 관련, 농어민 관련 예산이 많이 누락이 돼 있어서 최대한 증액을 한다. 다만 일방적인 증액만 하게 되면 그게 다 고스란히 국채 발행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액을 좀 하면서 해 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감액도 없이 올라가 가지고 관철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정부가 바뀌었잖아요. 정부가 바뀌었으면 새 정부 방향에 맞춰서, 제가 어제 제도 장관님께 그런 얘기를 한 건데 공과를 좀 명확히 해서 새로운 정부 기조에 안 맞는 사업들은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장관이 안 바뀌니까 그런 게 지금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좀 걱정이 되고.

그래서 저는 아까 존경하는 김선교 위원님 말씀이 좀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가야지 이렇게 그냥 백화점식으로 가

지고는…… 아까 우선순위를 정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런 거 정하시면 상의도 좀 해 주시고.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문금주 위원** 이번에 우리 농해수위에서 예결위로 들어가신 분이 아마 존경하는 이병진 위원과 임미애 위원인 것 같은데 그분들하고도 상의도 좀 해 주시고. 이번에 최대한 많이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이게 감액이 하나도 없어 가지고 그게 좀 걱정이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신경 써 주시고.

농가부채 관련해서 어제 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습시다만 농어민들은 이번에 추경 민생예산 관련해 가지고 발표가 됐지만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아무런 실질적인 체감을 못 느껴요. 왜냐하면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탕감 얘기만 나왔지 거기에 농어민 부채는 전혀 언급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러면 후속으로 농림부에서 이번에 최대한 어느 정도 범위 내에 농어민 부채가 탕감이 될 수 있는지도 수치화를 해 가지고 통계를 뽑아서 그거를 발표를 좀 어떠한 부분에서 혜택이 된다는 거를 좀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통계 뽑고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아닙니다. 어제 위원님 말씀 너무 잘 들었고 저희들이 사실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소상공인은 원래 농업인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문금주 위원** 그러니까 그중에 얼마 정도가 우리 농어민한테 해당이 돼서 몇 명 정도, 총액이 얼마 정도 혜택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을 농림부가 얘기를 해야지, 해수부가 얘기를 해야 되고.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저희들이 금융위랑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몸을 찾을 수 있으면 찾아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금주 위원** 최대한 통계 뽑아서 언론 보도를 한달지 해 줬으면 좋겠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금주 위원** 그리고 경북 산불 난 지역에 보면 농기계가 많이 탔어요. 그런데 이게 전혀 보상이 안 된다고 하는데 이래 가지고 제대로 된 재건이 되겠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위원님, 그 피해에 대해서는 농기계는 50%까지 보상을 했고요. 원래는 35%인데 50% 보상을 했고요. 그리고 농기계 업체에서 할인 판매도 하고 해서 많이 했는데 저희들이 다시 한번 현장 가서 좀 애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문금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위원님들 더 이상 하실 말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좀 해 보겠습니다.

1페이지, 1-1 60억 수용. 1-2 수용. 세부사업 2 철회. 그다음에 3쪽의 세부 연번 3-1 364억 7000만 원 수용. 4-1 24억 7700만 원 수용. 5-1 수용. 5-2 12억 4300만 원 수용. 5-3 5200만 원 수용. 6-1 15억 4000만 원 수용. 7-1 117억 3000만 원 수용. 8-1 42억 4000만 원 수용. 9-1 수용. 10-1 수용. 11-1 수용. 12-1 수용. 13-1 100억 수용. 14-1 5억

수용. 15-1 수용. 16-1 수용. 16-2 수용. 17-1 1억 수용. 17-2 1억 수용. 18-1 168억 수용. 19-1 수용 곤란. 20-1 39억 수용. 21-1 42억 2000만 원 수용. 22-1 수용 곤란. 22-2 190억 6400만 원 수용. 23-1 수용 곤란. 24-1 수용. 25-1 수용 곤란. 26-1 수용.

그다음에 부대의견, 나머지는 수용했고요. 4번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수급 불안 및 농가 부담 우려를 고려하여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절차를 진행한다 이렇게 수정하는 의견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지금까지 심사하여 조정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 농업재해보험 관련 등 9건 사항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 조정 사항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위원님들 우려의 목소리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략적으로, 우리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이 예결위 과정을 통해서 많은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럴려면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 계셨으니까 농식품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위원님들께서도 예결소위 또는 예결위 과정을 통해서 농식품부 예결소위에서 의결된 내용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결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님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오늘 의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과정에서 들은 위원님들 우려 사항은 제가 미처 생각지 못한 것도 있었는데 유념해서 국회 단계에서 심의할 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좀 많이 도와주시면 우리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해양수산부차관 및 관계 직원들이 착석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부 측에서 김성범 차관이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입니다.

오늘 위원님들 모시고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주신 의견들 저희들 추가경정예산과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 모시고 열심히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그러면 추경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농림축산식품부 심사와 동일하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최선영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선영 전문위원입니다.

목차 다음에 있는 추가경정예산안 요구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수부 소관은 증액 요구사업이 24건, 감액 요구사업이 1건, 부대의견이 2건이 있습니다. 이 중 1건에 대해서는 정부 측의 수용 곤란 의견이 있습니다.

참고로 당초 해수부 추정안은 836억 원이고 이 소위 자료 기준으로 추가로 증액된 규모는 약 1576억입니다.

다음은 자료 1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액 요구사업 24건 중 다수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해양관광육성 사업입니다.

해파리 등 유해생물 피해 방지를 위해서 피해 방지막 설치비 65억 52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내용입니다.

국제협력정책관실 소관과 관련하여 해양영토관리에 관한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 관련하여 연구용역 사업으로 10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수산정책관실 소관에 대하여 6번과 8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5페이지, 6번입니다.

양식어업재해보험 사업입니다.

어업인들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하여 국고보조율을 상향하고 고수온·저수온 특약에 대한 국고보조율 상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수용 여부와 관련하여 수용 의견이고 그 규모는 60억 4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8번 사항 수산금융자금 이차보전 관련 내용입니다.

수산정책자금의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며 170억 61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어촌양식정책관실과 관련하여 11번과 13번 보고드리겠습니다.

11번, 수산중자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김종자 생산용 굴패각을 국산으로 대체하는 데 13억 20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13번 사항입니다.

양식어업인의 전기료 한시지원과 관련하여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인상분 보조를 위하여 186억 원의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자료 10페이지, 어업자원정책관실 소관입니다.

4개 사항 중에서 15번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업지도관리와 관련하여 국가어업지도선의 조속한 잔여 공정 재개를 위하여 104억 55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해운물류국 소관입니다.

3개 사업으로는 중국산 CCTV의 교체와 서귀포항 선원복지회관 건립 사업에 대한 증

액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항만국 소관 3개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진해신항의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 변경과 광양항 3단계 연결도로 연차소요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15페이지, 감액 요구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양정책관실 소관과 관련하여 박람회 정부선투자금을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상환하는 것과 관련하여 박람회장에 재투자하거나 연도별 분할 상환하도록 변경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정부 세입예산에서 3658억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이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이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상세히 들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어서 부대의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으로는 연근해어선 감척과 관련하여 감척사업에 대한 과세 문제에 대해서 관계부처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었고 두 번째 사항으로는 정부 추경안의 부채탕감 지원 예산과 관련하여 어가가 소외받지 않도록 금융위원회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정부 측 의견을 말씀 주시는데요. 수용 곤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증액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 전부 수용을 합니다. 다만 아까 전문위원께서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일부 항목은 세부 항목 간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느 부분을 증액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3건만 저희들이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항목으로는 6번이고요. 페이지 수로는 5페이지입니다.

양식보험의 보험료 지원과 관련해서 두 가지 항목에 수용 의견을 주셨는데요. 위쪽에 있는 60억 4800만 원을 수용을 하면 밑에 있는 16억 원은 자동적으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16억 4800만 원을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60억 4800만 원.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60억 4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항목으로는 11번이고요. 페이지로는 7번입니다.

김종자 생산용 굴패각과 관련해서 13억 2000만 원 증액 요구와 5억 원 증액 요구가 있었습니다. 큰 금액인 13억 2000만 원을 수용을 하면 나머지는 포함이 되기 때문에 13억 2000만 원 수용 의견입니다.

다음, 항목으로는 13번이고요. 페이지 수로는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서 186억 증액 의견과 92억 9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186억 원 증액 수용 의견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부대의견은 저희들 다른 의견 없고요. 수용 의견입니다.

감액 사업과 관련하여 조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이 사안은 여수광양항만공사의 박람회 관련 정부선투자금 3658억 원이 현재 세입에 반

영돼 있는데 이것을 전액 감액해 달라는 요구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건과 관련해서는 지난 제1차 추경에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한 국회의 의견은 감액을 유지를 하되, 세입을 유지를 하되 부대의견으로 해양수산부는 여수박람회 정부선투자금 상환과 관련하여 여수항만공사의 재무 상황 등을 고려한 합리적 방안을 강구한다 이렇게 국회에서 부대의견을 의결을 해 주셨습니다.

이 의견에 따라서 저희 해양수산부는 그동안 기재부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죽 해 오고 있고요. 현재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룬 것이 부산항만공사의 재무 상황을 감안해서 분할상환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과 내용은 저희들이 조금 더 마지막 조율을 해서 2~3주 내로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을 정부안대로 그대로 두셔도 실제 지난 1차 추경 때 국회에서 주문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반영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라는 차원에서 원안 유지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위원님들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구 위원님.

○강명구 위원 3번 보시면 해양영토관리 역량강화 사업이라고 해서 중국의 서해 잠정 조치수역 설치 구조물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 10억 예산 증액 건인데요. 어제에도 제가 질의를 했지만 1차 추경안에 100억 잡았었잖아요. 그런데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제외되었었는데 이번에 연구용역 예산은 통과 가능하겠습니까?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지난번에도 연구용역 예산 5억 원이 마지막까지 예결위 단계에서도 논의가 됐었습니다마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만 저희들 재정 당국 설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명구 위원 저는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안보 문제와도 연결돼 있지만, 하여튼 해수부에서 관철시킬 수 있도록 바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서천호 위원님.

○서천호 위원 차관님, 어제 질의 과정에서 삼천포 위판장 현대화 사업 관련해서 장관님한테 질의를 했고 또 충분히 공감을 했고 기 몇 차례 이 부분, 안전성 부분에 대해서 수차 지적을 했는데 항목이 아예 빠졌어요. 왜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그것은 어제 위원님들이 증액 요구를 해 주셨으면 여기에 반영이 됐을 텐데……

○서천호 위원 아예 항목 자체가 빠졌는데?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뭔가 행정적인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천호 위원 장관님도 충분히 인정을 했던 사안이고 또 실제로 거기는 위판장 자체가 지금 바다 위에 떠 있잖아요, 밑에 부식이 돼서. 어마어마한 인명 피해가 우려가 되는 그런 사안인데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구조개선 사업에 수십억 지금 편성하면서 왜 이게 다 빠졌어요? 항목 자체가 왜 빠졌는지 이유가 뭐예요? 이것 한번 챙겨 봐 주세요.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예,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천호 위원 하시고.

실질적으로 전국에 보면 이게 문제가 없는데 현대화를 시키자는 게 아니고 안전사고가 우려될 정도로, 왜냐하면 선박이 접안을 하게 되면 건물 자체가 흔들려요. 또 밑에 부식이 되는 게 눈으로 보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냉방이나 겨울 같으면 조금 따뜻하게 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상온에서 위판을 하고 있는 그런 사안이다. 경매를 하고 있는 그런 사안이고.

그리고 또 위생 안전 문제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물리적인 안전에 더 큰 위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수차례 강조를 했고 어제 또 장관님이 충분히 인식을 했고 포함을 시킨다고 했는데 이 항목 자체가 빠졌어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또 말씀하실……

○강명구 위원 위원장님, 그냥……

○소위원장 윤준병 강명구 위원님.

○강명구 위원 아까…… 5억 예산을 잡았었잖아요, 지난번에요.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예, 최종적으로 예결위에서 마지막까지 논의됐던 것은 5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명구 위원 그런데 지금은 왜 10억 잡았어요, 지난번에 5억 잡아서도 안 됐는데? 이 유가 있나요?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종합적으로 검토하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증액 요구를 해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요구 사항 기준으로 저희들이……

○강명구 위원 10억 받을 수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명구 위원 5억 받아서 안 됐는데 10억 해 주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다음은 이병진 위원님.

○이병진 위원 기우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강 위원께서 걱정돼서 말씀하시는데 조경태 위원님 또 10억으로 하신 거고 또 2대 하라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겠지요, 하나에 그때 5억이었으니까. 그렇지요?

이것은 하늘이 무너져도 해야 되는 겁니다. 비례 대응까지 준비해야 될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중국이 절대 물러나지 않습니다. 해양주권 차원에서, 우리 영토주권 차원에서 꼭 타이트하게 전투적으로 임해 주길 바라고 저 또한 계속 관심을 갖겠습니다.

그다음에 동남권 해양레저관광거점 사업, 존경하는 문대림 위원님 지역구 제주도도 해당되고 또 이번에 부산에 해양수산부 가는데 옆에 울산 동구도 이 거점 사업이 굉장히 필요한데 이것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지방 소멸이라든지 내수 경제 활성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커버하는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구요.

그다음에 19번 항만보안시설 확충, 이것 제가 네 번 거론했는데 이번에 이것도 꼭 관철이 돼서…… 캠프 험프리스가 바로 평택·당진항 옆에 붙어 있고 그다음에 해군2함대가

또 평택·당진항 옆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장관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꼭 이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수부에서 특별히 챙겨 주기 바랍니다. 기우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재정 당국과 열심히 협의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문금주 위원님.

○문금주 위원 차관님, YGPA 세입 관련 이게 수용 곤란으로 왔는데 지금 거의 죽어가는 사람 산소마스크를 떼면 되겠어요? 산소마스크라도 좀…… 일단 살려 놓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부 정책에 따라서 박람회장 인수받으면서 3658억 원이라는 상환 의무가 발생이 됐는데 매년 지금 70억 원 이상 적자가 나고 있는데 이게 수용 곤란으로만 하시지 말고 이제 정부도 바뀌었으니……

이게 지난번 정부에서 너무 감세 정책에 의해서 세수 부족이 많이 생겨서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세수 확보 차원에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좀 부대의견을 달든지 아니면 뭔가 대안을 마련을 해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 30년부터 10년 분할상환을 한달지 아니면 박람회장 자산의 정부 귀속 및 관리권 출자 운영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달지 이런 부대의견을 달든지 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정부가 바뀌었다는 이런 느낌이 좀 올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계속 수용 곤란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전향적으로 검토 좀 해 주세요.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혹시 위원님께서 부대의견을 다는 게 조금 더 전향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저희로서는 1차 추경에는 ‘재무 상황 등을 고려한 합리적 방안을 강구한다’ 이렇게 조금은 포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분할상환이라는 워딩을 넣으셔서 부대의견을 주시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문금주 위원 예.

○소위원장 윤준병 내가 그 문제와 관련해서 하나 여쭙볼게요.

지금 세입 항목에 3658억이 반영돼 있어요, 예산안에. 그러면 이 예산안은 의무 발생이 세입에 넣어야 되는 게 연내까지 다 넣어야 되는 거지요?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그러니까. 그러면 부대의견에다가 세입 이대로 놔두고 부대의견을 예를 들면 분할상환한다 이렇게 넣는다 하더라도 세입 내용이 변경되지 않으면 이 내용은 그대로 유효한 거잖아요.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그런 경우에는……

○소위원장 윤준병 그래서 이 내용이 조정될 수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해 줘야 된다, 세입 내용에.

예를 들면 분할상환을 해요. 그러면 분할상환 지금 염두에 두고 예를 들어서 이 내용과 관련해서 10년 분할상환이에요. 그러면 이 내용에다가, 3658억 이 내용 중에 10년이면 10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365억을 여기다, 예를 들면 세입에다 넣는다든지 이렇게 조정한다든지 이것을 넣어 줘야 그리고 부대의견에 10년 분할상환을 적극 검토한다 이렇게 넣어 줘야 이게 실효성 있게 담기는 것이지 세입예산 그대로 놔두고 부대의견 달아도 그것은 부대의견일 뿐이고 세입 내용은 그대로 유지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의견을 좀 줘 봐요. 지금 검토되고 있는 게 5년 분할상환입니까?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지금 실무적으로는 10년 분할상환 정도를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10년 분할상환? 그러면 감액 요구해서 10분의 1을 남기고 10분의 9를 삭감하는 내용을 넣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실효성 있게 가서 예결위에서 그 내용이 구속되는 내용으로 담기지 않겠어요?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제가 의견 좀 올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그렇게 우리가 의결을 해 드릴 테니까, 예를 들면 전액 삭감이 안 되면 부담을 줄여서 분할상환하는 내용으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고 10년 분할상환을 염두에 두고 있으면 그 내용을 오히려 가서 얘기하기 용이하게 ‘예전에 부대의견에 따라서 이렇게 검토됐습니다. 그 내용을 반영한 세입경정예산입니다’ 이렇게 얘기가 가능하도록 여기서 만들어 드려야, 여러분들이 예결소위나 예결위에 가서 이 내용을 검토할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나와 있는 내용, 세입 내용에 10분의 1에 해당되는 내용을 여기다 담고 나머지는 감액하는 내용으로 의결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그 의견에 대해서 의의가 있나요? 실무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위원장님, 우선은 두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3658억이 세입 예산에 잡혀 있더라도—이 내용은 기재부하고 조율된 내용입니다—첫해 금액을 얼마를 납부할지는 조금 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고요. 10년 균등 분할상환이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10분의 1 딱 하면 좋은데 그것은 저희들 조금의 추가 조정의 여지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그러니까 그 추가 조정의 여지가 있는 내용은 해서 예결위에서 최종적으로 이것 추경예산 확정되기 전까지 협의를 하시고, 그 내용은. 대신에 이쪽의 의지는 원래는 이것 다 삭감하고 싶은데 정부의 입장에서 분할상환으로 선회했다고 하고 그렇게 협의했다고 하니 그 내용을 존중해서 우리가 그 내용 방향으로 일단 정해 줄 테니까 세부적으로 일부 조정이 되는 내용은 예결위 과정에서 그 내용을 확정 짓는 작업을 하시라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10분의 1에 해당되는 내용을 남기고 나머지 10분의 9는 삭감해서 이후에 분할상환이 가능한 내용으로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그러면 10분의 1을 남기고 10분의 9를 삭감하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빨리 확정해 주세요.

○전문위원 최선영 예, 알겠습니다.

○이병진 위원 아니, 소각해 버리면 안 돼요?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저희들 돈 받기는 받아야 되고요. 다만 재무 상황 관련해서 조금 길게 분할 납부 받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병진 위원 아니, 그냥 정부가 우리 국가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 박람회 잘 했잖아

요. 물론 다 참여한 거지만……

○전문위원 최선영 그러면 10%만 내게 되는 겁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그러니까 3292억 원이 삭감되면 10%만 납부하는, 오케이.

○문대림 위원 하나 잠깐만요.

○소위원장 윤준병 의결하려고 하는데.

○문대림 위원 1분이면 됩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알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친하잖아요, 우리.

이 예산안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양식장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서 어쨌든 육상 양식장의 경우에 전기료 부담을 덜어 내지 못하면, 이것에 대한 실효적 대책을 만들어 내지 못하면 양식장의 미래가 없다는 전망입니다, 사료값, 인건비, 전기료 이런 부담이 너무 커서. 그래서 작년에 나왔던 표준설계에 관한 얘기 혹시 들어 봤습니까? 예산도 반영된 줄 아는데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그 구체적인 상황……

○문대림 위원 아는 분 있나요?

○해양수산부양식산업과장 도윤정 양식산업과장입니다.

말씀하셨던 양식장 표준설계 모델 관련해서 올해부터 3년간 매년 5억씩 해서 연구용역 착수가 들어갔고요. 넓치라든지 주요 어종에 대해서 표준 스마트양식장 모델을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올해부터 들어가는 거지요?

○해양수산부양식산업과장 도윤정 예, 올해부터.

○문대림 위원 이게 에너지 효율에도 맞춰지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부양식산업과장 도윤정 맞습니다. 스마트화하는 표준모델로 해서 연구 중입니다.

○문대림 위원 그 관련 계획을 저희 방으로 한번 보고 좀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부양식산업과장 도윤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소위원장 윤준병 위원님들 의견이 안 계시면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서천호 위원 차관님, 삼천포 위판장 부분은 포함을 좀 시켜야 되지 않아요?

○소위원장 윤준병 그 부분은 지금 와서 제출이 안 된 상태에서 포함시키는 건 어렵고요. 다만 지금까지 증액 요구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증액 요구를 이미 했는데 누락했다면 그 부분은 보완이 가능한데 지금까지 증액 요구가 안 됐다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위원회에서 바로 포함시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아직 제출이 안 된 것으로 돼서 이 부분은 다음 기회를 활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1-1 수용, 2-1 수용, 2-2·2-3·2-4·2-5 수용, 3-1 수용, 4-1 수용, 5-1 수용, 6-1·2 포함 해서 60억 4800만 원 수용, 7-1 수용, 8-1 수용, 8-2 수용, 9-1 수용, 10-1 수용, 11 13억 2000만 원 수용, 12-1 수용, 12-2 수용, 13 186억 수용, 14-1 수용, 15-1 수용, 16-1 수용, 17-1 수용, 18-1 수용, 19-1 수용, 20-1 수용, 21-1 수용, 22-1 수용, 23-1 수용, 24-1

수용.

그다음에 감액 요구 내용은 3292억 감액 수용.

그다음에 부대의견 2건 1-1, 2-1 수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해양수산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금까지 심사하여 조정한 대로 수정의결하고 연근해어선 감척 등 2건 사항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적인 조정사항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의결사항과 관련하여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추가경정예산은 저희들이 착실히 준비해서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예결위 단계에서도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 반영해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수고하셨습니다.

차관님과 관계 직원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산림청장 및 관계 직원들이 착석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산림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추경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정부 측에서 임상섭 청장이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장 임상섭** 존경하는 윤준병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25년도 제2회 산림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하고 조언은 산림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그러면 추경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임재금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재금** 심사자료 3번입니다. 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청 소관으로는 위원님께서 제기해 주신 사업이 세부사업 기준으로 8건이고 내역사업 기준으로 11건입니다. 모두 증액 의견이고 산림청은 모두 수용 입장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은 산불피해 일반벌채구역 벌채 지원을 위하여 1000억 500만 원 신규 편성 의견이고 다음 페이지 2번은 송이 대체작물 조성을 위하여 104억 7900만 원 증액 의견이며 3번은 선도산림경영단지 1차 설계비로 3억 원 증액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4번은 새만금수목원 본격 추진을 위하여 17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다음 페이지 5-1번은 카모프 헬기 가동 중단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외 임차헬기 도입·운영 예

산 555억 2500만 원 신규 편성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5-2번은 산림항공 지원포털 시스템 고도화 예산 4억 3700만 원 신규 편성 의견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6-1번은 산림휴양시설 내 소화시설 운영을 위해 40억 88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이고 6-2번은 드론 활용 무인 산불시스템 구축 예산 24억 신규 편성 필요 의견이며 6-3번은 산불재난 업무 수당 지급을 위하여 3억 81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 7번은 산악기상관측망 시스템 구축과 장비 구입을 위해 16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8번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의 내내역사업으로 산불확산 원인 차단을 위한 예산 309억 6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산림청장 임상섭 총괄적으로 8개 사업에 대해서 2200억 원 증액된 사업 내용이 있습니다.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전부 동의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희 위원 제가 좀……

○소위원장 윤준병 이만희 위원님.

○이만희 위원 청장님, 여러 가지 예산 증액 요청한 것 중에서 국외 임차헬기 도입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500억이 넘는 막대한 예산들이 지금 투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보면 드론이라든지 또 전체적인 걸 빅데이터를 접목할 수 있는 AI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이 비약적으로 발전이 되고 있는데 이런 기술들을 이용해서 예방적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없습니까, 산불 피해를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산림청장 임상섭 저번 1차 추경 때도 일부 예산이 반영되었고요, R&D 관련된 예산이 반영되었고 이번 법에 산불 우려지역을 추출해서 집약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내용들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이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AI라든지 자동 감지형 CCTV라든지 드론을 이용한 감시·예방체계라든지 또 인공위성까지 저희들이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중장기적으로……

○이만희 위원 하여튼 이번에 본예산 심의할 때도 일단은 산림청이 사용했던 내용도 나올 텐데 진화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사용한 것이, 또 예방 차원에서 지금 투입하고 있는 예산들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저희 의원실에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알겠습니다.

○이만희 위원 하여튼 선제적으로 예방 차원에서 뭔가 좀 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투입하는 데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림청장 임상섭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위원님,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림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대로 증액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장 임상섭**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윤준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산림청 사업의 중요성을 인정해 주셔서 이렇게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결위라든지 금년도 본예산이라든지 관련된 활동에 있어서 의견 주시는 것들 최대한 반영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청장님 또 직원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사항의 자구와 금액 등의 정리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회 직원, 보좌직원 여러분 그리고 정부 측 관계자 여러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출석 위원(9인)**

강명구 김선교 문금주 문대림 서천호 송옥주 윤준병 이만희 이병진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전문위원 최선영

전문위원 임재금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강형석

해양수산부

차관 김성범

산림청

청장 임상섭